

# 한국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성격, 양육경험에 따른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

이 하 나(경희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성격적 특성, 양육 경험에 따른 자녀 양육 신념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 양육 신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소재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 239명이었다. 한국인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전현진(199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원영(1983)의 ‘자녀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 전통-근대 가치관’,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의 문항 가운데 선택한 문항과 선행 연구들(Luster&Rhoades, 1989; Okagaki&Sternberg, 1993; Sameroff&Feil, 1985)을 참고로 구성된 고을희(2001)의 양육 신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인성을 강조하는가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가, 자연적인 성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가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가, 마지막으로 전체를 강조하는가 개인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4가지의 하위 변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생들의 아동기 양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Epstein(1983)의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수정하여 사용한 전현진(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독립성 조장 대 과잉 보호 차원, 수용 대 거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양육 신념의 차이에서 양육 신념 중 인성 대 지적 성취 강조 신념과 성숙 대 환경 강조 신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대 개인 강조 신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전체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이 있으며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전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외향성 및 정서성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에 따른 양육 신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격적 특성 중 정서성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을수록 전체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을수록 개인을 강조하는 양육 신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 보호 및 수용 대 거부적인 양육경험에 따른 양육 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독립성 조장의 양육경험을 가진 집단이 과잉 보호 양육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지적 성취보다는 인성을 더욱 강조하는 양육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 조장 양육경험을 가진 집단이 과잉보호 양육 경험을 가진 집단보다 환경의 지지와 지원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육 신념과 관련 변인들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의 현재의 양육 신념이 이후 실제 자녀 양육을 할 때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 연구를 실시한다면, 예비 부모 및 부모의 양육신념을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ey Word** : 개인적 특성, 성격적 특성, 양육 경험, 양육 신념